

## 미국장로교회 제 46 차 총회 조치들 L. 로이 테일러, 총회 서기

### 2018년 6월 13일-15일, 제 46 차 총회 장소, 조지아 주 아틀란타 시

총회는 만일 총회 일정이 하루 줄어들었다면 치리 장로들의 참석이 늘 것이라는 지표들에 상응하여 계획된 일정을 압축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통상의 화요일이 아니라 6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열었다. 902 교회들을 대표하는 강도 장로들 1,202, 시무 장로들 335, 총 1,537 총대들이 출석했다. 금년의 짧아진 형식으로 인해 시무 장로들의 출석이 작년에 비해 약 1/2% 늘었다.

메트로 아틀란타 노회가 주최한 총회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였다. 중경 총회의장 **짐 워트 시무 장로**와, 아틀란타 웨스트사이드 장로교회의 목사인 **월터 헨네거 강도 장로**가 주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었다. 직전 총회 의장인 **알렉산더 전 시무 장로**가 개회 예배에서 “복음으로 이웃하기”에 대해 말씀했다. 다른 두 예배를 위한 설교자들은 차타누가의 록아웃 마운틴 장로교회의 **조 노벤슨 목사**와 대 아틀란타의 페리메타 교회의 **랜디 풀 목사**였다. 총회는 세계적으로 북미주와 해외에서 온 열 사람의 방문객들로부터 문안을 받았고, 열 개의 총회 위원회와 기관들로부터 진행 보고들을 들었으며, 특별 위원회들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사십 개의 현의안에 대해 조치를 했으며, 인종 화해와 다양성에 대한 임시 위원회의 최종 보고에 대해 조치했고, 총회 위원회들과 기관의 이사회들에서 섬길 회원들을 선출했다.

### 총회 의장, 어윈 인스 박사

2017년 총회가 알렉산더 전 치리 장로를 첫 한국계 미국인 총회의장으로 선출했던 것이 역사적이었던 처럼, 2018년 총회는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장으로서 어윈 인스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역사적이었다. 인스 박사는 뉴욕 시 대학에서 전기 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모토롤라에서 근무했다. 일찌기 감리교회와 침례교회들을 경험한 후, 후기 R. C. 스프롤 박사의 영향을 통해 개혁주의관들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학 훈련을 위해 워싱턴 디씨의 리폼드신학교에 출석했다. 메릴랜드 주 보위 시 소재 마운트 시온 미국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케빈 스미스의 지도를 받은 후, 인스는 2007년에 메릴랜드 주 콜롬비아 시에 시티 오브 홉 미국장로교회를 개척했다. 그는 2016년에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획득했다. 2018년 1월부터 그는 교차-문화 선교를 위한 그레이스디씨 네트워크 인스티튜트의 담당자로 섬겼다. 그는 2016년에 현의위원회 위원장으로, 2016-2017에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임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2017년에는 총회 예배에서 설교로 총회를 섬겼다. 인스 박사는 기술자의 효율성과 외교관의 지혜, 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2018년 총회를 사회했다.

### 인종 화해와 민족적 다양성

2016년에 총회는 지상의 교회가 종말에 있을 천상의 교회를 더욱 참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7:9-10) 교단이 북아메리카의 노예, 인종 분리, 차별 및 증가하는 민족적 다양성의 다 세대적 효과들을 파악할 것을 추구하도록 의장 죠지 라벗슨 박사가 미국장로교 내의 인종 화해와 민족적 다양성에 관한 임시 위원회를 임명하도록 인준했다. 그 위원회는 케빈 스미스 (위원장), 칼 엘리스, 알렉산더 전, 손 루카스, 쇼나단 세다, 리치 세션과 알렉스 쉽맨을 포함했다. 자문 위원들은 실베스터 브라운, 오티스 픽켓과 러스 윌필드였다. 다양한 인종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2017년 두 번째 해까지 계속되었는데,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갖고 있었다.

- 인종적 또 민족적 화해에 관한 미국장로교 내의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
- 인종적 화해와 민족적 다양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미국장로교회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확인한다.
- 건설적 지침들을 개발하고, 인종적 화해의 사역을 지향하는데 진보가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회들과 당회들을 포함해서, 미국장로교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 단계들을 제시한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총회는 동 위원회가 “미국장로교회가 인종 화해에 관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양적 기준선 척도를 얻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연구 조사를 착수하고 인종 화해 연구 위원회가 진전을 격려하도록 추천 할 수 있는 실제적 지침이 필요한 영역들을 확인하도록” 라이프웨이(남장로교 총회의 한 연구 부서)를 고용할 것을 인준했다. 그 조사는 “주로 지역 교회 수준에서 모든 민족들에 속한 사람들의 제자 훈련을 하는데 태도들, 바램들, 교훈, 행위들 및 진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부차적 목표는 유사한 차원들 기준에서 총회 수준의 사역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목요일 오전 제 46 차 총회 안건 기간 전에 전 총회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위원회 회원들은 그들의 작업을 반영했고 질문과 답변으로 마감했다. 동 위원회는 지침 원리들을 포함하는 예순 여섯 쪽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찬성들과 반대들, 성경적 및 신학적 기초들, 목회적 및 선교적 배려들, 연구 결과들(라이프웨이) 및 분석, (회중들, 노회들, 또 총회 수준의 위원회들과 기관들을 위하여) 인종적 화해를 위한 구체적 제안들, 또 총회가 취할 조치에 대한 네 가지 추천안들을 담고 있다. 총회는 감사로 보고를 받고 (제자사역위원회가 다른 적절한 총회 조치들과 함께 보고서를 출판하고 분배할 것을 위한 지침과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후속 설문에 대해 국내선교위원회가 착수하고 내년 후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포함하여) 네 추천안 모두를 채택했다.

### 열 총회 수준 사역들의 진척 보고

- **행정위원회/총회 서기 사무실** - 총회 서기 로이 테일러는 차기 세 총회는 2019 년에 달라스, 2020 년에 버밍햄, 2021 년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과 기관들에서 행정위원회로 보내도록 요청된 기금들, 총회 등록비, 목회자들에 대한 (자발적) 연례 행정비, 또 위원회들과 기관들에 대한 건물 점유비를 늘리지 않을 것을 추천했다.
- **제자사역위원회** - 제자사역위원회 코디네이터 스티븐 에스톡은 제자사역위원회가 사람들을 웹사이트(pcacdm.org), 회합들, 훈련 행사들,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원들에 연결 시켜주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했다. 제자사역위원회는 여성들에게 관심있는 주제들을 강조하는 *인커리지*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어린이 사역 101* 을 출판했다.
- **커버넌트 대학교** - 커버넌트 대학 총장 데렉 할보슨 박사는 카터 홀의 사 단계 개조 보수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2016-2017 에 약 295 명의 새 학생들이 등록되었다. *유에스 뉴스 및 월드 리포트*는 다시 커버넌트 대학을 전국의 문과 대학들의 상위권으로 분류했다.
- **커버넌트 신학교** -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 마크 달비 박사는 신학교가 온라인과 여섯 번 학교 방문을 합한 합성물 형태의 신학 석사와 병행하여, 두 개의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들, 성경과 신학 연구 신학 석사와 목회 문학 석사를 만들어 온라인 신학 교육의 증가에 맞추어 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회 개척 목회학 석사 과정이 제공되었다.
-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선교위원회 코디네이터 폴 한은 국내선교위원회의 강조들이 교회 개척, 교회 갱신 및 (재난 구제, 난민 및 이민자 사역들, 도시 및 구제 사역들, 감옥 사역들, 특수 필요 사역들, 국가에 대한 사역, 채플린 사역들 및 제 이 직업 사역들과 같은 사역들과의) 선교적 동역에 있다고 보고했다. 쉰 넷의 교회 개척자들과 열 여섯 교회 개척 연수자들이 배치됐다.
- **세계선교위원회** - 세계선교위원회 코디네이터 로이드 김 박사는 총회에게 모든 미국장로교 교회가 장년 교인들의 1 %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보낸다고 하는 세계선교회의 목표를 상기 시켰다. 여든 다섯 나라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636 명의 해외선교부 장기 선교사들 중 454 명이 교회 개척자들이고, 56 명이 신학교 교수들이며, 열 하나는 휴가로 출타 중이고, 115 명은 다른 사역들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선교부는 822 명의 국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교회 개척 축들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와 브라질의 대 도시들에 형성되고 있다.
- **미국장로교 재단** - 미국장로교 재단 회장인 랜디 스테어는 미국장로교 재단으로 보내진 기금들이 총 11,200,000 불이었다고 보고했다. 2017 년에 미국장로교 재단은 10,700,000 불을 분배했다. 미국장로교 교회들에게 3,400,000 불, 미국장로교 위원회들과 기관들에게 2,600,000 불, 또 다른 기독교 사역들에 4,700,000 불을 분배했다. 2017 년에 총 자산은 93,100,000 불이었다. 미국장로교 재단은 청지기도와 박애심으로 미국장로교 교회들과 교인들을 섬기고 있다.

- **학원선교위원회** - 학원선교위원회의 임시 코디네이터 라드 메이스는 학원선교위원회가 여덟 개(여섯 학원 선교와 두 해외 학원 선교)의 새 학원 사역들을 시작하기 위해 노회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학원선교회는 60 노회들과 함께 38 주에 있는 145 학원들에서 사역한다. 2018 년의 새 학원들은 달라스 텍사스 대학 해외 학원, 콜롬비아 해외 학원과 펜실베니아 주 인디애나 대학을 포함할 것이다. 세계 학원선교회는 멕시코 시, 체코 공화국의 프라그, 콜롬비아의 보고타,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에서 해외선교부와 함께 사역한다. 총회는 직전 학원선교회 코디네이터 탐 캔넨 강도 장로의 봉사에 감사를 표시했다.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장, 게리 캠빌은 0.92 %의 지출 비율은 17 년만에 최저라고 보고했다. 관리 하에 있는 자산은 2018 년 1 월에 600,000,000 불을 초과했다. 목회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위한 돌봄과 상담 사역인 서번트케어 시작되어 왔고, 연간 사역 구제 현금이 주 사역으로 계속되고 있다.
- **릿지 헤이븐 회관** - 릿지 헤이븐 담당자 윌리스 앤더슨은 모든 자금 운동 프로젝트가 2017 년에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릿지 헤이븐은 그 사역을 노스캐롤라이나의 장소에서 계속하고 또 7 월에 중서부 아이오와 주 위커 시에 있는, 릿지 헤이븐 코노라고 불리게 될, 새로 구입된 코노 시설에서 새 사역을 시작한다.

### 헌의안들

노회들은 총회의 조치를 위해 마흔 헌의안들을 제출했다. 총회 서기는 헌의안들을 총회운영세칙에 준하여 적절한 위원회들에게 위탁했다.

총회는 다음의 총회 위원회의 추천안들을 채택했다.

- 국내선교위원회는 노회의 경계에 관하여 세 헌의안들의 인준을 추천했다. 한 헌의안은 메트로 뉴욕 노회를 두 노회로 나누어 새 노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이고, 두 헌의안들은 목사들의 아내들을 훈련하고 격려하며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위원회는 총회 등록비를 450 불에서 100 불로 낮추기 위한 헌의안을 [예상] 산출이 실현성이 없고 치리 장로들의 설문치에 따르면, 총회 회비가 시무 장로들의 불참에 대한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위에 반대할 것을 추천했다.
- 행정위원회는 미국장로교의 제 50 주년 축하 행사를 계획하기 위한 헌의안을 수정된 대로 인준할 것을 추천했다.
- 행정위원회는 *교회 헌법*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번역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로 지정되어 보내지는 기금이 있어야 된다는 헌의안의 인준을 추천했다.

총회에 추천안들을 올리는 헌의위원회(OC)는 각 노회로부터 온 치리 장로 한 사람과 강도 장로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금년의 헌의위원회에는 일흔 다섯 노회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 총회는 상정된 *교회 헌법*의 일곱 수정안에 대해 투표하도록 노회들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헌의위원회의 추천안들을 채택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장로의 자격에 관한 *헌법* 8-1 과 8-3 의 수정.
  - 미국장로교회에서 탈퇴하기 위한 공동의회는 삼십일의 통보를 요구하도록 *헌법* 25-11 의 수정.
  - 한정된 정직에 관한 *헌법* 30-1 의 수정.
  - 한정되지 않은 수찬 정지나 정직에 관한 *헌법* 30-3 의 수정.
  - 교회 치리회 모든 수준에서 미국장로교의 수찬 교인 누구든지의 조언을 허용하도록 *헌법* 32-19 의 수정.
  - 증인으로 소환된 치리회 회원이 자동적으로 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도록 *헌법* 35-11 의 수정.
  -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하고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은 오직 그런 결혼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을 추가하고 재정리하여 *헌법* 59-3 을 수정. *헌법* 59-3 에 완전한 헌법상의 지위를 부여하라.

- 총회는 소천한 목회자들을 추념하자는 여섯 헌의안들이 2017 년에 채택된 *총회운영세칙* 13-6 에 불일치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헌의위원회의 추천안을 채택했다.
- 총회는 다음의 헌의안들이 부정적으로 대답되어야 한다고 한 헌의위원회의 추천안들을 채택했다.
  - (여성들을 포함하여) 안수 받지 않은 사람들이 커버넌트 대학의 이사회와, 모든 다른 총회 위원회들과 기관 이사회들에서 봉사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헌의안.
  - 안수 받지 않은 집사직이라고 말하자는 헌의안.
  - 면직된 목회자는 오직 그를 면직 시킨 노회 안의 교회로만 배정 될 것을 요구하도록 *헌법* 46-8 을 수정하자는 헌의안.
  - 책벌을 가하기 전에 해설 문단을 하나 추가하도록 *헌법* 36-5 를 수정하자는 헌의안.
  - 보조 집사들이 여집사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금하도록 *헌법* 9-7 과 24-11 을 수정하자는 헌의안.

### 숫자로 본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는 2017 년 통계들을 총회에 보고했다.

- 교회 수는 스물 셋이 늘어 1,568 이다.
- 미조직 교회 수는 셋이 줄어 344 이다.
- 목회자들의 수는 121 이 늘어 4,882 이다.
- 주일학교 출석은 1,330 이 줄어 93,670 이다.
- 총 신앙 고백자들은 넷이 늘어 9,733 이다.
- 총 등록 교인은 575 가 늘어 374,736 이다.
- 헌금 총액은 8,050,232 불이 늘어 837,105,612 불이다.

### 제안된 기도, 헌금과 행사들

- 시월 중 지역 당회들이 결정한 대로 커버넌트 대학을 위한 기도.
- 2018 년 11 월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달 (세계선교위원회).
- 지역 당회들이 선택한 날짜에 세계선교위원회의 사랑의 사역들을 위한 특별 헌금.
- 2018 년 11 월 4 일은 전 세계의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날 (세계선교위원회).
- 추수감사절 때 혹은 성탄절 때 혹은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의 연례 구제 사역 헌금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2018 년 미국장로교 여성회를 위한 사랑의 기금은 (제자사역위원회)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을 위한 것이다.
- 총회는 십일조와 헌금 총액의 0.35%에 기초하여 교회들이 행정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한 요청을 인준했다 (단 기금 마련 프로젝트들은 제외함).

제 사십 칠 차 총회는 2019 년 6 월 25 일에서 28 일까지, 텍사스 주 달라스 시에서 열릴 것이다.